

###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 곡물 수확 위기

#### (Record heat puts French grain harvest at risk)

유럽연합(EU) 최대 곡물 생산국인 프랑스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면서 생육 중인 옥수수 작물에 피해를 주고 수확을 앞둔 밀의 생산량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가들이 화요일 밝혔다. 프랑스 기상청은 프랑스 대부분 지역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가 발령됐으며, 화요일 기온이 약 40°C까지 상승했고 이번 주 서부 일부 지역은 최고 43°C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.

### 코트디부아르, 엘니뇨 우려에 코코아 수출 계약 판매 일시 중단

#### (Ivory Coast pauses cocoa export contract sales amid El Nino concerns, sources say)

세계 최대 코코아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는 다가오는 수확량을 보다 명확히 추산하기 위해 2026/27 시즌 주작(main crop) 코코아 수출 계약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고 코코아 규제기관 관계자 2명이 화요일 밝혔다. 코트디부아르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6/27 시즌 주작에 대해 지금까지 약 115만 톤의 코코아 원두 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, 엘니뇨(El Niño) 기후 현상이 수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추가 계약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커피·코코아 위원회(CCC) 관계자 2명이 로이터에 전했다.

출처: Thomson Reuters